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장,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6일(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험회사 CEO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보험업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 : '23.12.6(수) 09:30~10: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10개* 보험회사 CEO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보험회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IFRS17 도입에 따라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상품개발, 자산부채 관리, 판매전략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 상품, 자산관리 등에 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 신뢰 형성이 가능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권이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실생활의 위험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혁신과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에 한층 더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온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히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단기 실적을 위한 불건전 영업은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미래의 부담이 된다”라며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의 상생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였으며, 보험업권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보험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도 제기하였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고선영 (02-2100-2961)

